

은 산 별 신 제 (恩 山 別 神 祭)

任 東 權

은산(恩山)은 옛날 전쟁(戰爭)터였다고 하며, 당산(堂山)에는 진지(陣地)가 있었다고 전(傳)하기도 하고, 또 백제(百濟)의 어느 장군(將軍)이 이곳에서 재건(再建)을 위해 싸우다가 분사(憤死)했다고 전(傳)하기도 하며, 별신제(別神祭)의 축문(祝文)에 의(依)하면 역대(歷代) 명장(名將)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백제사(百濟史)와 어떤 관계(關係)가 있는 것으로 추측(推測)이 된다.

1,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의 배경(背景)

은산(恩山)에는 옛날부터 전(傳)해 오는 별신제(別神祭)라는 큰 향토신사(鄉土神祀)가 있으니 인근(隣近) 수개군민(數個郡民)이 모여들어 대성황(大盛況)을 이룬다. 이 별신제(別神祭)는 별로 문헌(文獻)에 소개(紹介)된 일이 적으나 그 규모(規模)가 클 뿐 아니라, 제의(祭儀)의 진행(進行)으로 보아 토속적(土俗的)인 산제(山祭)와 장군제(將軍祭)가 습합(習合)된 신의(神儀)로서 매우 주목(注目)되는 신사(神祀)이다.

부여(扶餘)에서 서(西)쪽으로 오리(五里), 규암진(竅岩津)에서 금강(錦江)을 건너 다시 서북(西北)쪽으로 15리(十五里)를 가면 은산(恩山)이라는 큰 마을이 있으니, 행정상(行政上)으로는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君) 은산면(恩山面) 은산리(恩山里)가 된다. 아직 읍(邑)은 못 되었으나 면(面) 소재지(所在地)로서는 큰 편(便)이고, 도로(道路) 하나 사이로 연결(連接)해 있는 신대리(新大里)와 합(合)하면 700여호(七百餘戶)에 달(達)하며, 중학교(中學校) 하나, 국민학교(國民學校)가 둘, 1日과 6日에는 시장(市場)이 서는 바 인근(隣近) 물산(物産)의 집산지(集散地)로 되어있다.

은산(恩山)은 교통(交通)의 요지(要地)이니 남(南)으로는 규암진(竅岩津)을 거쳐 부여(扶餘)와 논산(論山)에 통(通)하고, 동(東)은 정산(定山)을 거쳐 공주(公州)로 통(通)하고, 서(西)쪽은 홍산(鴻山)을 거쳐 서천(舒川)으로 연결(連結)되며, 북(北)은 청양(靑陽)을 거쳐 예산(禮山)으로 통(通)하니 옛날에는 역원(驛院)이 있었다고 하는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은산역원(恩山驛院)이라 기록(記錄)되어 있다.

은산(恩山)은 교통(交通)의 요지(要地)인 위에 부여(扶餘)와는 20리(二十里)(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현서십오리(縣西十五里)로 되어 있으나 구로(舊路)로 따진 것임) 밖에 안되나 백제사(百濟史)와의 관련(關聯)을 가질 수 있는 입지조건(立地條件)에

농여있고, 토양(土壤)이 비옥(肥沃)하고 금강(錦江)의 지류(支流) 은산천(恩山川)이 당산(堂山) 아래를 흐르고 있어 사시(四時) 청류(清流)를 이루고 있다.

은산(恩山) 마을 북(北)쪽에 국민학교(國民學校)가 자리잡고 있고, 바로 그 뒤에 높이 팔십미정도(八十米程度)의 산(山)이 있으니 당산(堂山)이라 부르며, 당산(堂山) 남麓(南麓)에 신당(神堂)이 있고 이 신당(神堂)에서 매세(每歲) 정초(正初)에 산신제(山神祭)가 있고 삼년(三年)만에 별신제(別神祭)가 거행(舉行)되고 있다. 그래서 이 당(堂)을 산제당(山祭堂), 산신당(山神堂) 또는 별신당(別神堂)이라고 부르며, 당산(堂山)이란 말은 당(堂)이 있으므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전(傳)한다.

당산(堂山)은 전남향(全南向)으로 되어 있어 풍수상(風水)으로 보아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가 뚜렷하고 득수(得水)의 완벽(完璧)을 이루고 있으며, 안산(案山)으로 신대리(新大里)에 있는 통봉산(山)이 있어 여기에는 흥미(興味)있는 전설(傳說)이 있다. 전설(傳說)에 의(依)하면 십삼도(十三道) 사람들이 사흘을 족(足)히 먹을 만한 값의 은(銀)이 매장(埋藏)되어 있다고 한다. 일설(一說)에는 은산(恩山)은 원래(元來)는 은산(銀山)이었으며, 은산(銀山)의 유래(由來)는 은(銀)이 매장(埋藏)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傳)한다.

당산(堂山) 남(南)쪽 당우(堂宇)에서 동(東)쪽으로 백미(百米)쯤에 넓은 터가 있으니, 여기에 우의정(右議政) 만암(晩庵) 충정공(忠貞公) 이상진(李常眞)과 정경부인(貞敬夫人) 연안김씨(延安金氏)의 합장묘(合葬墓)가 있다. 이 묘(墓)는 와룡음수형(臥龍飲水型)의 명당(明堂)이라고 한다. 당우(堂宇)의 서(西)쪽은 절벽(絶壁)으로 되어 있으니 절벽하(絶壁下)에는 은산천(恩山川)이 흐르고 있다.

산당(山堂)은 삼가계(三段階)로 된 토성적(土城跡)이 있으며, 산정(山頂)에 올라가면 멀리 남동(南東)쪽으로 부여(扶餘)가 바라다 보인다.

은산(恩山)이 지리적(地理的)으로 교통(交通)의 요소(要素)로서 육로(陸路)가 십자가(十字街)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여(扶餘)와 인접(隣接)해 있어 북방(北方)의 요지(要地)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욱이 임존성(任存城)에 가는 통로상(通路上)에 위치(位置)하여 백제(百濟)의 흥망(興亡)과 밀접(密接)한 관계(關係)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전설(傳說)에 의(依)하면 별신(別神)의 기원(起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傳)해지고 있다. 은산(恩山)은 옛날 전쟁(戰爭)터였다고 하며, 당산(堂山)에는 진지(陣地)가 있었다고 전(傳)하기도 하고, 또 백제(百濟)의 어느 장군(將軍)이 이곳에서 재건(再建)을 위해 싸우다가 분사(憤死)했다고 전(傳)하기도 하며, 별신제(別神祭)의 축문(祝文)에 의(依)하면 역대(歷代) 명장(名將)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백제사(百濟史)와 어떤 관계(關係)가 있는 것으로 추측(推測)이 된다.

또, 신당(神堂)에는 화상(畫像)이 세 폭(幅) 있으니 정면(正面)은 주신(主神)인 산신내외(山神內外)분을 모셨으나 동(東)쪽 우벽(右壁)에는 복신장군(福信將軍), 서(西)쪽 좌벽(左壁)에는 토진대사(土進大師)로 되어있다. 복신장군(福信將軍)이라면 백제(百濟) 삼십대(三十代) 무왕(武王)의 종자(從子)인 귀실(鬼室) 복신(福信)인 것이며, 토진대사(土進大師)는 우리나라 고승전(高僧傳)에서 아직 듣지 못하던 이름으로 혹(或) 도침대사(道琛大師)의 오기(誤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이유로 은산(恩山)이 부여(扶餘)에서 불과(不過) 20리(二十里) 지점(地點)에 위치(位置)해 있어 역사적(歷史的)인 관련(關聯)이 있다면은 백제(百濟)와의 관계(關係)가 있었을 것이 짐작되며, 또 복신장군(福信將軍)이 백제말(百濟末)에 백제재건(百濟再建)

을 위(爲)하여 전력(全力)하던 점(點)으로 미루어 토진대사(土進大師)(?)도 백제사(百濟史)와 관련(關聯)있는 인사(人士)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토진대사(土進大師)와 음(音)이 유사(類似)한 도침대사(道琛大師)의 와전오기(訛傳誤記)가 아닌가 싶다.

복신(福信)과 도침(道琛)은 백제재건(百濟再建)에 합력(合力)하여 오랫동안 임존성(任存城)에 본거(本據)를 두고 싸웠으며, 일본(日本)에 가 있는 왕자(王子) 풍(豐)을 불러 왕(王)으로 세우고 실지회복(失地恢復)을 꾀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백제(百濟)가 멸망(滅亡)할 당시(當時) 귀실(鬼室) 복신(福信)과 도침대사(道琛大師)와의 관계(關係)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제말엽(百濟末葉)의 상황(狀況)을 가리켜 김부식(金富軾)은 기록(記錄)하기를

「시시(是時) 백제군신(百濟君臣) 사태음일(奢泰淫逸) 불홀국사(不恤國事) 민원신노(民怨神怒) 재괴루견(災怪屢見)」 주(註)①

이라 하였고, 당인(唐人)들도 평(評)하기를

「황외기직신(況外棄直臣) 내신요부(內信妖婦) 형벌소급(刑罰所及) 유충량(唯忠良) 용임소가(龍任所加) 필충도행(必充諂倖)」 주(註)②

이라 하였다. 또, 일본서기(日本書記)에서는

「후왈(或曰) 백제자망(百濟自亡) 유군장부인요(由君丈夫人妖) 여지무도(女之無道) 격탈국병(擊奪國柄) 주살현량고(誅殺賢良故) 소사화의(召斯禍矣)」 註③

라고 평(評)한 것으로 미루어 조정(朝廷)의 이지러운 모습이 짐작이 간다.

좌평(佐平) 성충(成忠)은 의자왕(義慈王)의 황음일락(荒淫逸樂)을 간(諫)하다가 옥중(獄中)에서 수사(瘦死)했으며, 충신(忠臣) 흥수(興首)는 유죄(流罪)되었으니 국정(國政)은 문란(紊亂)해지고 국력(國力)은 날로 쇠퇴(衰退)했다. 이러한 틈을 타서 나당(羅唐)은 연합(聯合)하여 백제(百濟)를 공격(攻擊)하였으니 나장(羅將) 김유신(金庾信)은 오만(五萬)을 거느리고 동(東)에서 진격(進擊)하고, 당장(唐將) 소정방(蘇定方)은 십삼만(十三萬) 대군(大軍)을 거느리고 금강(錦江) 하류(下流)에 상륙(上陸)하여 협공(挾攻)하니 백제(百濟)는 삼십일왕(三十一王) 육칠팔년(六七八年)만에 사직(社稷)이 무너지고 말았다.

사비성(泗泌城)이 함락(陷落)하고 왕(王)은 강복(降伏)하였으나 북(北)쪽에 있는 임존성(任存城)에는 흑치상지(黑齒常之)가 거(據)하여 백제부흥운동(百濟復興運動)을 벌리니 왕족(王族) 귀실(鬼室) 복신(福信)은 승려(僧侶) 도침(道琛)과 전력(全力)하여 임존성(任存城)에 본거(本據)를 두고 일본(日本)에 청(請)하여 왕자(王子) 풍(豐)을 불러들여 왕위(王位)에 앉히고, 처음에는 위세(威勢)를 부여 일시(一時)에 이백여성(二百餘城)을 회복(回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은 다시 원군(援軍)을 보내어 임존성(任存城)을 공격(攻擊)하였으며, 때마침 복신(福信)과 도침(道琛)은 서로 반목(反目)하여 복신(福信)이 도침(道琛)을 죽이더니 후(後)에는 복신(福信)이 풍(豐)한테 죽음을 당(當)하여 백제부흥운동(百濟復興運動)은 균열(龜裂)이 생기고 3三年後에는 풍(豐)마저 고구려(高句麗)로 달아나니 백제(百濟)는 영영 멸망(滅亡)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로 보아 복신(福信)과 도침(道琛)은 마지막에 서로 반목(反目)했을 망정 함께 백제재건(百濟再建)을 계획(計劃)한 것으로 보아 은산별신(恩山別神)은 백제멸망사(百濟滅亡史)와 유관(有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은산(恩山)의 전설(傳說)에 의(依)하면 어느 장군(將軍)이 억울하게 죽었다던가, 또는 백제(百濟)가 망(亡)할 무렵에 진지(陣地)가 있었다던가 하는 것으로 미루어 사실(史實)

과의 관련(關聯)을 암시(暗示)하며, 백제부흥운동(百濟復興運動)의 지도적(指導的) 쌍벽(雙壁)이었던 장군(將軍)으로서의 복신(福信)과 승려(僧侶)인 도침(道琛)을 제(祭)한 것은 은산별신(恩山別神)이 백제멸망사(百濟滅亡史), 부여(扶餘)와의 지리적(地理的) 조건(條件), 전설(傳說), 그리고 별신당(別神堂)의 신상(神像)이 일치(一致)하는 셈이다.

전설(傳說)에 전(傳)하는 억울하게 죽은 장군(將軍)과 그 병졸(兵卒)을 제사(祭祀)한다는 이야기는 풍(豐)과 복신(福信)과 도침(道琛)이 서로 통일(統一) 단결(團結)하여 조국부흥(祖國復興)을 위하여 싸우다가 적(敵)도 아닌 동지(同志)에 의(依)해서 죽음을 당(當)하였다는 것, 즉 복신(福信)은 도침(道琛)을 죽이고 복신(福信)은 풍(豐)에 의해 죽은 사실(史實)로 보아 전설(傳說)이 사실(史實)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당(神堂)에 있는 신상(神像) 토진대사(土進大師)를 도침대사(道琛大師)라고 추단(推斷)하는 것은 아직 과문(寡聞)한 탓으로 토진대사(土進大師)의 이름을 문적(文籍)에서 찾아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토진(土進)과 도침(道琛)은 국음(國音)이 비슷하고 도침(道琛)은 복신(福信)과 함께 백제재건(百濟再建)을 위해 싸웠으니 은산(恩山) 당산(堂山)에 있는 진지(陣地)에서 싸웠을 가능성(可能性)도 있어 토진대사(土進大師)는 도침대사(道琛大師)의 오기(誤記)라고 믿어진다.

이 토진대사(土進大師)에 대(對)하여 은산(恩山) 현지(現地)의 고로(古老)들한테 문의(問議)했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복신(福信)에 대(對)해서도 아는 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래 전승(傳承)되는 동안에 와전(訛傳)되어 도침(道琛)이 토진(土進)으로 오기(誤記)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註)①, 三國史記 卷四十一 金庾信傳

주(註)②, 百濟塔 碑文에서

주(註)③, 日本書記 卷二十六 齊明 天皇 六年條

2.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의 유래(由來)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가 언제부터 시작(始作)하였으며, 누구에 의(依)해서 처음 하게 되었으며, 왜 별신제(別神祭)를 지내게 되었는지 그 기원(起源)이나 유래(由來)에 관(關)하여 고증(考證)할만한 문헌(文獻)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도 은산역(恩山驛)이 있었다는 기록(記錄)이 있을 뿐이고 지지(地誌)나 세시기(歲時記), 문집(文集)에도 아무런 기록(記錄)이 없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발간(發刊)한 『조선(朝鮮)의 향토신사(鄉土神祀)』 第二章에 은산별신(恩山別神)에 대(對)한 기록(記錄)이 있으나 현지(現地) 조사(調査)와 전설(傳說)에 의(依)했을 뿐 문헌(文獻)을 인용(引用)하지는 못하였다.

은산별신(恩山別神)의 기성회(期成會) 일을 오랫동안 맡아온 바 있는 류상렬옹담(劉尙烈翁談)에 의(依)하면 당산(堂山)에 묘(墓)가 있는 충정공(忠貞公) 이상진(李尙眞)의 후손(後孫)이 있으면 묘(墓)와 별신당(別神堂) 사이가 불과(不過) 100m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기록(記錄) 문헌(文獻)이 간직되어 있을지 모르나, 만 문헌(文獻)에서 본 일은 없고 지금은 이충정공(李忠貞公)의 후손(後孫)의 향방(向方)마저 미상(未詳)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유래(由來)는 구전(口傳)되는 전설(傳說)에 근거(根據)를 찾을 수 밖에 없는 형편(形便)에 있다. 은산별신(恩山別神)의 유래(由來)에 관(關)한 전설(傳說)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전설(傳說) ㉠

옛날 은산지방(恩山地方)에 유행병마(流行病魔)가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특(特)히 젊은 사람들이 나날이 죽어서 송장이 되어 나가니 사람들의 근심은 대단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고로(古老)가 잠시 낮잠을 자게 되었다.

꿈에 마루턱에 앉아 있으려니 한 신선(神仙)이 백마(白馬)를 타고 나타나 하는 말이 『이 마을에 병마(病魔)가 들어 근심이 되고 있는 것을 풀어줄 터이니 청(請)을 들어 주겠느냐』고 했다. 마을 노인(老人)은 너무나 고마워서 『병(病)만 없어진다면 무슨 청(請)이건 듣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신선(神仙)이 말하기를 『나는 내 부하(部下)와 함께 억울하게 죽어 있는바 아무도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어 풍우(風雨)에 시달리고 있으니 잘 매장(埋葬)해 달라』로 부탁하면서 시체(屍體)가 흩어져 있는 곳을 가리켜주고 사라져 버렸다.

노인(老人)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노인(老人)은 바로 마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신선(神仙)이 가리켜준 곳을 찾아가 보니 과연(果然) 수(數)많은 전사(戰士)의 백골(白骨)들이 산재(散在)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백골(白骨)을 정성껏 잘 매장(埋葬)하고, 그 원혼(冤魂)을 위령(慰靈)하기 위(爲)하여 제사(祭祀)를 지내기 시작했더니 병마(病魔)는 없어지고 마을은 다시 평화(平和)롭고 행복(幸福)하게 살수 있었다고 한다.

이 제사(祭祀)를 별신제(別神祭) 또는 별신(別神)이라 부르며, 별신(別神)은 죽은 장병(將兵)을 위령(慰靈)하기 위(爲)한 것이라고 한다. (필자(筆者)가 어려서 고로(古老)들한테서 들은 이야기)

전설(傳說) ㉡

옛날 은산(恩山)은 역촌(驛村)이었는데 젊은이는 17(十七)·8(八)세(歲)가 되면 병(病)을 얻어 죽기가 일수이고, 가축(家畜)도 낳아서 3個月이 되면 죽는 일이 많았다.

어느날 은산(恩山)의 한 노인(老人)이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노장군(老將軍)이 나타나 자기(自己)는 백제(百濟)의 장군(將軍)인데 나의 백골(白骨)이 모처(某處)에 흩어져 있으니 잘 물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꿈에서 깬 노인(老人)은 죽은 백제장군(百濟將軍)의 원한(怨恨)을 풀기 위(爲)해서 전승(戰勝)의 흉을 내는 별신제(別神祭)를 지내게 되었으며, 별신(別神)할 때에 군복(軍服)을 입고 승마(乘馬)하며 진(陣)치듯 오방(五方)도는 까닭도 여기에 있고, 산제(山祭)는 매년(每年) 지내나 경비(經費)가 많이 드는 별신제(別神祭)는 三年만에 한번씩 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은산리(恩山里) 김중대씨(金鍾大氏) 담(談))

전설(傳說) ㉢

옛날 은산(恩山)의 진지(陣地)이었다. 큰 난리가 있어 이곳에서 수(數)많은 장병(將兵)들이 전사(戰死)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장병(將兵)들의 영(靈)을 위안(慰安)하기 위(爲)하여 별신제(別神祭)를 지내게 되었으며, 별신제(別神祭)를 지낸 후(後)로는 동내(洞內)가 태안(泰安)하고 모두 무병(無柄)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은산리(恩山里) 윤상봉(倫常鳳)씨 담(談))

이 밖에도 많은 전설(傳說)이 전(傳)하고 있으나 대개(大概)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이다. 전설(傳說)을 추려 분석(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옛날 은산지방(恩山地方)에는 병마(病魔)가 심(甚)하게 유전(流轉)하였으며,

나, 마을 고로(古老)의 꿈에

다, 신선(神仙) 또는 노장군(老將軍), 백제장군(百濟將軍)이 나타나서

라, 자기네가 억울하게 죽어 들보는 이가 없으니,
 마, 백골(白骨)을 잘 매장(埋葬)해 줄 것을 부탁한 바,
 바, 마을 사람들은 현몽(顯夢)한 대로 안장(安葬)하고 위령제(慰靈祭)를 지냈더니
 사, 병마(病魔)도 낮고, 마을이 태평(泰平)했다.

아, 이것으로 인(因)하여 그 후(後)로 매년(每年) 산제(山祭)를 지내고 3三年마다 별신제(別神祭)를 지내게 되었다.

이상(以上)으로 보아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는 장병(將兵)의 위령제(慰靈祭)로 출발(出發)했으며, 억울하게 죽었다는 장군(將軍)과 그 졸병(卒兵)들이란 백제(百濟)의 장병(將兵)으로 보았고, 제사(祭祀)의 목적(目的)은 망령(亡靈)을 위안(慰安)함으로써 원혼(冤魂)을 진정(鎮定)시켜 악역(惡役)을 구축(驅逐)하고 동리(洞里)의 안태(安泰)를 기원(祈願)하는 수호제(守護祭)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古代)에는 의학(醫學)이 발달(發達)치 못 하였으니 병마(病魔)로 하여 불의(不意)에 생명(生命)을 잃는 수가 많았다. 따라서 적극적(積極的)으로 초복(招福)을 바랐고, 악역(惡疫)을 예방(豫防)코자 노력(努力)했으니 억울하게 죽은 장병(將兵)의 원혼(冤魂)을 진정(鎮定)시킴으로써 효과(效果)를 거두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기(動機)에서 별신제(別神祭)는 유래(由來)하였다.

별신제(別神祭)의 발생시기(發生時期)에 대(對)하여서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문헌(文獻)의 일실(逸失)로 상고(詳考)할 길이 없고, 다만 현지(現地) 고로(古老)들 말에 의(依)하면 아주 옛날부터 전(傳)해 왔다는 것이다.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의 단골 무당(巫堂)인 박(朴)언년(73세(七三歲)) 노파(老婆)도 별신(別神)은 수백년(數百年) 전(前)부터 전(傳)한다고 말할 뿐 정확(正確)한 연대(年代)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별신제(別神祭)의 기원(起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당우(堂宇)의 중수기(重修記)가 있으나 현재(現在)의 당우(堂宇) 정면(正面)에 걸려있는 현판(懸板)은 1947년(一九四七年) 전(前)의 것이며, 중수(重修) 당시(當時)의 이장(里長)이었던 유상렬옹(劉尙烈翁) 담(談)에 의(依)하면 원래(元來) 현판(懸板)이 있었으나 중년(中年)에 분실(紛失)되고 중수(重修) 당시(當時)에는 아무 것도 없어서 새로 현판(懸板)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새 현판(懸板)에는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의 유래(由來)에 대(對)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記錄)되어 있다.

…恩山里者 古百濟時戰場地 其戰亡將 卒冤魂憤魂久而不散 往往作不時之風雨 不正之癘疫
 …은산리자 고백제시전쟁지 기전망장 졸원혼분혼구이불산 왕왕작불시지풍우 부정지려역
 人畜或罹其災 故建此神堂 以土地神簇子主壁而奉安之配 以古名將畫幅于東 西壁而祭之鎮之
 인축혹리기재 고건차신당 이토지신족자주벽이봉안지배 이고명장화폭우동 서벽이제지진
 지 每歲元正必致虎而祭之 三年而一大祭設兵馬旗幟 鼓噪內喊儼如戰陣行事 以宣慰其潛藏
 鬱抑之氣

매세원정필치호이제지 삼년이일대제설병마기치 고조내함엄여전진행사 어선위기잠장을
 억지기

此所謂別神大祭也…

차소위별신대제야…

이희순기(李羲純記)

은산(恩山)이 백제(百濟)의 고전장(古戰場)이었고 전몰(戰歿)한 장병(將兵)의 원혼(冤魂)을 제사(祭祀)하여 악역(惡疫)을 퇴축(退逐)함을 목적(目的)으로 별신제(別神祭)를 지내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앞서의 전설(傳說)과 같은 내용(內容)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수기(重修記)는 원래(元來)의 중수기(重修記)가 없으매 하는 수 없이 전설(傳說)을 토대(土台)로 하여 중수기(重修記)를 작성(作成)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의 문헌상(文獻上) 고증(考證)은 불가능(不可能)하고 전설(傳說)에 의(依)한 민속적(民俗的) 기원설(起源說)을 긍정(肯定)할 수 밖에 없다.

3,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의 진행(進行)

① 기성회(期成會)

별신제(別神祭)를 지내려면 맨 먼저 별신제기성회(別神祭期成會)를 조직(組織)한다. 별신제기성회(別神祭期成會)란 별신제(別神祭)를 거행(舉行)하기 위(謂)한 일체(一切)의 결정(決定)을 내리는 위원회(委員會)이니 마을의 유지(有志)로 구성(構成)이 된다.

별신제(別神祭)가 단순(單純)히 한 마을에 국한(局限)되는 지방산제(地方山祭)의 규모(規模)가 아니고 많을 때에는 10萬을 헤아리는 군중(群衆)이 모여들고 적을 때에도 5·6萬 정도(程度)의 사람이 모여들므로 지방관서(地方官署)의 승인하(承認下)에 진행(進行)이 된다. 따라서 지방관서(地方官署)의 장(長)은 협조(協助)를 얻는 뜻에서 고문격(顧問格)으로 추대(推戴)되고 기성회(期成會)에서는 주(主)로 ㄱ, 경비조달(經費調達) ㄴ, 절차결정(節次決定) ㄷ, 임원선발(任員選拔)을 맡아 한다.

규모(規模)가 큰 대제(大祭)인만큼 임원수(任員數)도 많고 제사(祭祀)도 약(約) 이주일(二週日) 정도(程度)나 걸리며, 경비(經費)도 많이 들므로 기성회(期成會)는 여러번 소집(召集)u 회의(會議)를 거듭한다. 별신제기성회(別神祭期成會)가 70회, 또 99회나 회의(會議)를 한다고 전(傳)하는바 그만큼 여러 번 회(會)를 한다는 것이다.

좁은 거리에 수만군중(數萬群衆)이 모여드니 치안(治安)이나 위생문제(衛生問題)도 있고, 군중(群衆)을 노리고 흥행업자(興行業者)도 들어오며, 잡상(雜商)과 한량(閑良)들이 모여 들으니 여러 가지 문제(問題)가 생기므로 그러한 문제(問題)도 관(官)과 협의(協議)해서 처리(處理)해야 한다.

진(陣)대배기서부터 시작(始作)하여 장승세우기까지 약(約) 이주일(二週日)에 걸친 행사(行事)가 끝나면 별신제기성회(別神祭期成會)는 결산(決算)을 하고 해산(解散)한다. 발족(發足)에서 해산(解散)하기까지는 약(約) 2個月쯤 걸리며, 그동안 무보수(無報酬)로 마을을 위해서 헌신집무(獻身執務)하는 것이다.

② 제기(祭期)

별신제(別神祭)는 3년에 한번씩 한다. 매세(每歲) 지내는 제사(祭祀)는 산제(山祭)라 부르고, 3년만에 지내는 대제(大祭)는 별신(別神)이라 부른다. 산제(山祭)는 소규모(小規模)이니 경비(經費)도 적게 들지마는 별신제(別神祭)에는 백미(百米) 100석(白石) 내지(乃至)는 200석(二百石)의 막대(莫大)한 경비(經費)가 들므로 3년만에 한번으로 정(定)했다는 것이다.

1938년(一九三八年) 간(刊)인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조선(朝鮮)의 향토신사(鄉土神祀)』에 의(依)하면 약(約) 40년 전(前)에는 매세(每歲) 거행(舉行)하였다고 기록(記錄)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지금으로부터 칠십여년(七十餘年) 전(前)에는 매년(每年)

지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매삼년(每三年)이란 것이 엄격(嚴格)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일제말기(日帝末期)에는 치안확보(治安確保) 식량부족(食糧不足) 람비(濫費) 등(等)의 이유(理由)를 붙여관(官)에서 잘 인가(認可)를 해주지 않았으며, 해방후(解放後)에는 다시 별신제(別神祭)에 이바지했으나 1959년(一九五九年)을 마지막으로 경비조달(經費調達)의 악환경(惡環境) 때문에 중단(中斷)되고 있는 형편(形便)이다.

그동안 별신제(別神祭) 재건(再建)을 위하여 지방유지(地方有志)들 사이에 수차(數次)의 논의(論議)가 있었으나 막대(莫大)한 경비(經費)를 부담(負擔)할 특지가(特志家)가 없고, 관(官)의 보조(補助)도 없어서 실천(實踐)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산제(山祭)와 별신제(別神祭)는 모두 신춘(新春)에 한다. 산제(山祭)는 정월(正月)에 하고 별신제(別神祭)는 뱀이 나오기 전(前)에 한다. 대개 정월(正月) 하순경(下旬頃)에서 3월까지 사이에 택일(擇日)해서 거행(舉行)한다. 제일(祭日)이 택일(擇日)되면 이 날을 전후(前後)하여 행사(行事)가 결정(決定)되니 대체(大體)로 순서(順序)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 第一日 진대베기
- 第二日
- 第三日 꽃받기
- 第四日
- 第五日 별신(別神)올리다
- 第六日 행군(行軍)과 축원(祝願)
- 第七日 "
- 第八日 "
- 第九日 "
- 第十日 별신(別神)내리다, 하당(下堂)굿
- 第十一日
- 第十二日 화주(火主)만의 독산제(獨山祭)
- 第十三日 장승세우다

이렇게 해서 이주일(二週日)에 걸친 별신제(別神祭)는 장승세우기를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③ 임원(任員)

별신제(別神祭)는 규모(規模)가 큰만큼 임원수(任員數)도 많으니 임원(任員)의 명칭(名稱)과 소임(所任)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모두 기성회(期成會)에서 선정(禪定)한다.

대장(大將) 가장 높은 벼슬이며 명예(名譽)로운 자리이고 제사(祭祀) 때에는 백마(白馬)를 탄다. 인망(人望)이 있고, 재력(財力)이 넉넉해서 경비조달(經費調達)의 능력자(能力者)라야 하며, 하급자(下級者)의 급여(給與)도 주어야 한다.

중군(中軍) 대장(大將) 다음가는 벼슬이니 중장(中將)이라 부르기도 한다. 승마(乘馬)를 한다.

사명집사(司命執事) 별신제(別神祭)의 사명(司命)에 해당(該當)하며 승마(乘馬)를 한다.

선배패장이인(先輩裨將二人) 행사시(行事時)에 대장(大將)을 호위(護衛)하며 승마(乘馬)를 한다.

후배패장이인(後輩裨將二人) 통인(通引) 소년중(少年中)에서 선발(選拔)하며 승마

(乘馬)를 한다.

화주(火主) 제물(祭物)을 장만하며 제주(祭主)의 역할(役割)을 담당하는 중직(重職)이니 가장 청결(清潔)한 사람이 맡는다.

육화주(六火主) 제물중(祭物中) 육류(肉類)만을 맡아서 화주(火主)를 보좌(補佐)한다.

별좌삼인(別座三人) 화주(火主)의 조수격(助手格)이며 화주(火主)집에 드나들 특권(特權)이 부여되고 제물(祭物)만드는데 협조(協助)한다.

축관(祝官) 축문(祝文)을 읽으니 유식(有識)한 사람 중(中)에서 선발(選拔)한다.

이상(以上)의 임원의(任員外)에 무당(巫堂) 조화자(造花者) 농악수(農樂手) 기수(旗手) 제물운반자(祭物運搬者) 등(等) 근백명(近百名)이 동원(動員)된다.

무당(巫堂)은 예년(例年) 단골 무당(巫堂)이 있으며 약(約) 50년동안 박(朴)언년이란 73세(歲)의 노무(老巫)가 맡아왔다. 무당(巫堂)에 의(依)해서 별신제(別神祭) 앞에서와 시장(市場)에서의 하당(下堂)굿을 한다.

조화자(造花者)는 사찰(寺刹)의 승려(僧侶)가 하거나 불연(不然)이면 꽃에 솜씨이쓴 자(者)가 담당(擔當)한다. 악공(樂工) 육명(六名)은 삼현육갑(三絃六甲)을 갖추며 황의(黃衣)에 모모(毛帽)를 쓴다. 농악대(農樂隊)는 쟁과리, 쟁(鐙), 북, 장고(長鼓)로 구성(構成)되며, 나팔수(手)가 선두(先頭)에 선다. 기수(旗手)는 모두 31명이니 영기(令旗) 1人, 농기(農旗) 1人, 사명기(司命旗) 1人, 음양기(陰陽旗) 4人, 이십사방기(二十四方旗) 24人이 필요(必要)하다.

제물(祭物)의 운반(運搬)에는 청의(青衣)를 입은 청소년(靑少年) 약(約) 30名이 담당(擔當)하며, 이밖에 나입수(喇叭手) 2人, 구등(球燈) 2人, 화속(花束) 6人 등(等)이 있어야 하니 모두 100名 정도(程度)의 사람이 동원(動員)되는 것으로 미루어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의 규모(規模)를 짐작할 수 있다.

④ 진대(진목(陣木))베기

별신제(別神祭)의 구체적(具體的)인 출발(出發)은 진대(진목(陣木))베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별신제(別神祭)가 다가오면 미리 사람을 보내어 1·20里 이내(以內)의 거리(距離)에 방향(方向)을 보아 두었다가 임원일동(任員一同)이 성장(盛裝)하고 기마(騎馬)하여 공인(工人)들의 삼현육갑(三絃六甲)소리도 요란하게 광대(廣大)를 불러 땅재주도 하면서 행군(行軍)하여 진대를 베러 간다. 진대란 참나무 사본(四本)을 베는 것을 말하니 높이 삼미정도(三米程度)의 작은 나무다. 베어온 진대는 그날 중(中)으로 은산동내(恩山洞內)에서 사방(四方)으로 뻗은 신작로(新作路) 길목에 세워둔 장승 옆에 세워둔다. 목적(目的)은 잡귀(雜鬼)를 예방(豫防)하는데 효과(效果)가 있다고 믿는데서 하는 것이다.

참나무 사본(四本)을 베는데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들 필요(必要)가 없을 것 같으나 전통적(傳統的)인 의식절차(儀式節次)에 의(依)하여 서두(序頭)를 장식(裝飾)하며 연도(沿道)에는 구경(求景)군이 도열(堵列)한다.

⑤ 꽃받기

진대를 베고 하루 쉰 다음날, 즉(卽) 별신제(別神祭) 2日前에 꽃을 받으러 간다. 별신제시(別神祭時)는 신춘(新春)이라 아직 꽃필무렵이 아니므로 조화(造花)를 사용(使用)한다. 화속(花束) 육개(六個)에 사용(使用)할 조화(造花)는 한달쯤 전(前)에 미리 주문(注文)해 둔다. 은산시내(恩山市內)의 조화자(造花者)로 하여금 만들게 하거나 부정(不淨)을 막기 위(爲)해서 정(淨)한 사찰(寺刹)의 승려(僧侶)로 하여금 꽃을 만들게 한다. 시내(市內)에서 만든 경우(境遇)에도 일단 정(淨)한 사찰(寺刹)같은 곳에 옮겨 놓았다가 꽃

을 받으러 간다.

꽃을 받으러 갈 때에는 진대베기할 때처럼 임원일동(任員一同)이 행군(行軍)을 해서 꽃을 정중히 모셔다 정(淨)한 방(房)에 두었다가 제일(祭日)에 사용(使用)한다. 그 사이에 함부로 방출입(房出入)을 할 수 없다. 은산(恩山)에서 가까운 고란사(皐蘭寺)·정혜사(定慧寺)같은 곳에서 흔히 받아온다.

받아 온 꽃은 제일(祭日) 아침에 화주(火主) 집에 옮겼다가 제물(祭物)을 올릴 적에 선두(先頭)에 서서 별신당(別神堂)으로 옮기며, 제후(諸侯)에도 일단 화주(火主) 집에 가져갔다가 임원(任員), 기부자(寄附者) 및 각리각호(各里各戶)에 나누어 준다. 별신(別神) 꽃은 모두 소중(所重)한 것으로 여겨 오래도록 방(房)에 꽂아 장식(裝飾)해 두는 것이 은산지방(恩山地方)의 습관(習慣)으로 되어있다.

⑥ 제물(祭物)과 제기(祭器)

산제(山祭)에 생(生)것을 사용(使用)하듯이 별신제(別神祭)도 제물(祭物)은 생(生)것을 사용(使用)한다. 제물(祭物)에는 술, 백병(白餅), 증병(蒸餅), 쌀, 콩, 팥, 시(柿), 물(栗), 조(棗), 고사리, 도라지, 녹두나물, 두부, 가조기, 튀각, 닭, 돼지머리 등(等)을 쓴다. 제물(祭物)은 화주(火主) 집에서 만드니 부정(不淨)을 피(避)하기 위하여 가족(家族) 이외(以外)의 출입(出入)을 금(禁)하고 별좌(別座)만이 드나들며 협조(協助)한다. 돼지머리만은 육화주(六火主) 집에서 생것으로 올렸다가 익혀서 다시 올린다.

제물(祭物)에 사용(使用)되는 용수(用水)는 지정(指定)한 곳의 것에 한(限)하여 사용(使用)하니 별신당(別神堂) 옆에 흐르는 은산천(恩山川)에 금(禁)줄을 쳐놓고 그 물을 사용(使用)한다. 별신제(別神祭)에 사용(使用)하는 술을 조라주(酒)라 하는바 3日間에 빙는다. 3日동안에 술이 되기에는 어려운 것이나 조라주(酒)만은 신조(神助)가 있어 잘 된다고 한다.

제사(祭祀)에 소용(所用)되는 제기구(祭器具)는 그때마다 새로 장만한다. 쌀을 일구는 대바구니, 조리, 자리, 바가지 등(等) 모두 신성(神聖)을 기(期)하기 위해서 기성회(期成會)에서 새로 장만하고 제후(祭後)에는 화주(火主) 집으로 가져간다.

⑦ 행군(行軍)

별신(別神)이 오르는 날에는 기성회(期成會) 역원일동(役員一同)과 대장(大將) 중군(中軍) 선후배패장(先後輩裨將) 통인(通引)은 승마(乘馬)하고 율복(戎服)에 정장(正裝)하고 행군(行軍)한다. 이 행군(行軍)이 불만해서 수많은 구경(求景)군이 모여든다.

행군(行軍)은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모(規模)의 대소(大小)는 있으나 진(陣)대베기 꽃받기 외(外)에도 별신(別神)올릴 때와 내릴 때, 그리고 제기(祭期) 3·4日 동안은 날마다 시내(市內)를 한바퀴씩 돌고 별신당(別神堂) 앞까지 행군(行軍)하니 모두 7·8회의 행군(行軍)이 있는 셈이다.

가장 큰 행군(行軍)은 별신(別神)올릴 때이니 그 순서(順序)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 영기(令旗) 二人
- 나팔수 二人
- 농기(農旗) 二人
- 사명기(司命旗) 二人
- 이십사방기(二十四方旗) 24인(二十四人)
- 음양기(陰陽旗) 4인(四人)
- 구등(球燈) 6인(六人)

화속(花束)	6인(六人)	
		청소년(靑少年)이 머리에 이고 간다.
화주(火主)	一人	
		축문함(祝文函)을 지고 간다.
제물운반대(祭物運搬隊)	약30인(約三十人)	
		입을 봉(封)하고 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고 간다.
농악대(農樂隊)	6인(六人)	
삼현육갑(三絃六甲)	6인(六人)	
사령(司令)	一人	
집사(執事)	一人	
선배 패장(先輩裨將)	二人	승마(乘馬)함
통인(通引)	一人	”
대장(大將)	一人	”
통인(通引)	一人	”
중장(中將)	一人	”
후배 패장(後排裨將)	一人	”
육화주(六火主)	一人	
축관(祝官)	一人	
별좌(別座)	三人	
기성회역원일동(期成會役員一同)		

이렇게 100명이 넘는 일행(一行) 뒤에는 지방관서(地方官署)의 장(長)과 동민(洞民) 다수(多數)가 뒤따르니 장관(狀觀)을 이룬다. 더욱이 30여본餘本の 기치(旗幟)가 바람에 나부끼고 기마정장(騎馬正裝)한 모습은 고대(古代)의 출진도(出陣圖)를 연상(聯想)케 한다. 악대(樂隊)와 기마대(騎馬隊)가 행군(行軍)할 때 즉(卽), 진대베기 꽃받기 시내행군(市内行軍) 같은 때에는 가끔 넓은 마당에서 몇 바퀴 돌고 가는 바 이것을 『오방(五方) 돌기』라 하며, 진(陣)치는 시늉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지덕(地德)을 누리게 된다고 전(傳)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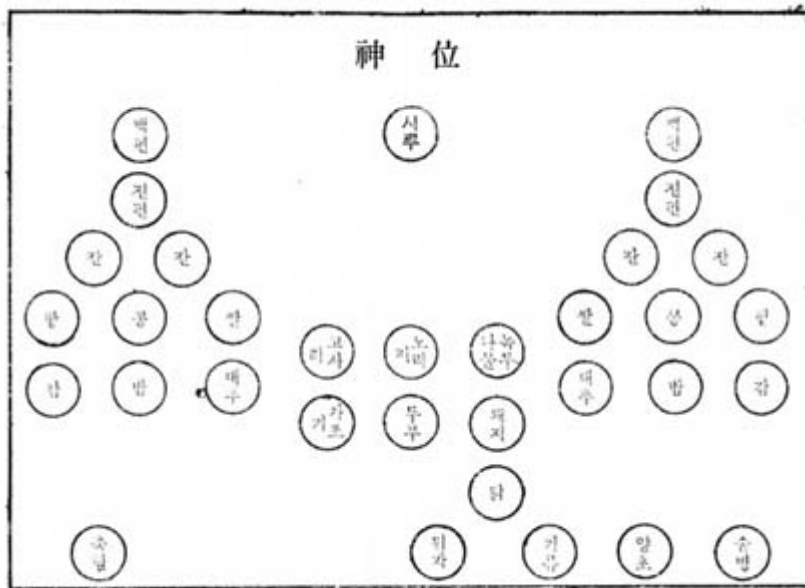
⑧ 진설(陳設)

운반(運搬)해 온 제물(祭物)은 당우(堂宇) 마루와 뜰에 자리를 깔고 두 상(床)을 진설(陳設)하는바 똑같은 진설법(陳設法)에 의(依)하고 있다. 제물(祭物)을 운반(運搬)해 올 때에는 같은 것이면 한 그릇에 담아 가지고 와서 두 접시에 나누어 놓기도 한다. 상(床)은 사용(使用)치 않고 자리를 사용(使用)하는 것은 제물(祭物)이 많은 까닭이라고 하며, 대개의 산신제(山神祭)에 상(床) 대신에 자리를 쓰고 있다. 상(床)을 둘 하는 이유(理由)는 산제(山祭)와 별신(別神)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설도(陳設圖)는 다음과 같다.

(진설도(陳設圖)는 별지(別紙))

陣設圖



진설도(陳設圖)

⑨ 축문(祝文)

축문(祝文)에 별신축문(別神祝文)과 산제축문(山祭祝文)의 두 가지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 별신축문(別神祝文)(1)

유 세차 신축정월 신묘삭십사일갑신

(維 歲次 辛丑正月 辛卯朔十四日甲辰)

은산동두장군 ○○○감소고우

(恩山洞頭將軍 ○○○敢昭告于)

장군열좌지위(將軍熱座之位)

동방청제장군(東方靑帝將軍)

남방적제장군(南方赤帝將軍)

서방백제장군(西方白帝將軍)

북방흑제장군(北方黑帝將軍)

중앙황제장군(中央黃帝將軍)

복신장군(福信將軍)

토진대사외(土進大師外)

삼천신위(三千神位)

근이청작서수경신전헌상(謹以淸酌庶羞敬伸奠獻尙)

향(饗)

○ 별신축문(別神祝文)(2)

유 세차 병신정월 을유삭십칠일 을축

(維 歲次 丙申正月 乙酉朔十七日 乙丑)

장군 ○○○감소고우 (將軍 ○○○敢昭告于)	堂山神靈 之位	沿流一岡 屹爲堂山	英靈攸暨 奠土是安
장군렬좌지위(將軍列座之位)	惟茲邨閭 幾百有餘	市井都會 農落錯居	精靈既孚 奠祝有久
동방청제장군(東方靑帝將軍)	民賴以生 熟非神佑	財穀咸富 壽考以靈	千災消滅 一區清賻
남방적제장군(南方赤帝將軍)	斫以粢盛 節省干禋	何論其物 有誠則伸	旣感厥誠 那無所佑
서방백제장군(西方白帝將軍)	降魔除妖 和風惠雨	監昭默運 人其自度	敢薦菲薄 靈其歆格
북방흑제장군(北方黑帝將軍)			
중앙황제장군(中央黃帝將軍)			
을지문덕장군(乙支文德將軍)			
김유신장군(金庾信將軍)			
김덕령장군(金德齡將軍)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			
임경업장군(林慶業將軍)			
이완장군(李完將軍)			
곽재우장군(郭再祐將軍)			
장봉익장군(張鵬翼將軍)			
김응서장군(金應瑞將軍)			
강홍립장군(姜弘立將軍)			

근이청작서수경신전헌상(謹以清酌庶羞敬神奠獻尙)

향(饗)

이상(以上)의 두 축문(祝文)은 실제(實際) 사용(使用)했던 것을 옮긴 것이며 오방신(五方神)과 장군명(將軍名)을 나열(羅列)하였다. 장군명(將軍名)이 많은 축문(祝文)은 중국(中國)과 한국(韓國)의 명장(名將) 96명(九十六名)의 이름을 적은 축문도 있었다. 일제하(日帝下)에서는 일경(日警)의 행사(行事) 허가(許可)를 얻기 위해서 왜장(倭將) 이름도 적은 일이 있다고 전(傳)한다. 이 별신축문(別神祝文)은 장군(將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산제축문(山祭祝文)은 변(變)함없이 같은 것을 쓰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 산제축문(山祭祝文)

유세차 병신정월 기유삭십칠일을축

(惟歲次 丙申正月 己酉朔十七日乙丑)

은산동두민등사대축 유학 이정배 감소고무

(恩山洞頭民等使代祝 幼學 李貞培 敢昭告于)

당산신령 지위	연류일강 홀위당산	영령유기 전토시안
유자춘려 기백유여	시정도회 농락착거	정령기부 전축유구
민뢰이생 숙비신우	재각함부 수고이령	천재소멸 일구청청
작이자성 절성간인	하른기물 유성즉신	기감결성 나무소우
강마제요 화풍혜우	감소목운 인기자도	감천비박 령기흠격

복유상
향

伏惟尙
響

⑩ 제의(祭儀)

제사(祭祀)는 시(時)를 맞춰서 하는바 대개 밤에 하게 된다. 당근처(堂近處)는 금(禁)줄을 치고 깨끗하게 청소(淸掃)를 한다.

행렬(行列)이 시내(市內)를 들고 당(堂)앞에 이르러 기(旗)를 꽂아 놓고 진설(陳設)이 끝나면 공인(工人)의 음악(音樂)에 맞춰 무녀(巫女)가 새신(賽神)을 위하여 당(堂)곳을 한다. 이 때에 임원(任員) 일동(一同)과 동민(洞民) 다수(多數)가 도열(堵列)한다. 당(堂)곳이 끝나면 제관(祭官)에 의(依)해서 정식(正式)으로 제사(祭祀)가 시작되니 제관(祭官)이란 화주(火主), 육화주(六火主), 별좌(別座), 축관(祝官)을 말한다.

화주(火主) 별좌(別座) 축관(祝官)에 의해서 강신(降神) 참신(參神), 삼헌향(三獻饗) 독축(讀祝)이 있다. 독축(讀祝)은 먼저 산제축(山祭祝)을 읽은 다음에 별신축(別神祝)을 읽는다. 이 때에 임원일동(任員一同)은 백배(百拜)를 하며, 육화주(六火主)는 생돈두(生豚頭)를 내려가서 삶아 다시 제단(祭壇)에 올린다.

독축(讀祝)이 끝나면 동내(洞內) 각(各) 세대주(世帶主)의 소지(燒紙)를 올리는바 별신(別神)에 희사(喜捨)한 사람의 소지(燒紙)도 함께 올리니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와 이름을 대며 만복(萬福)을 빈다. 소지(燒紙)는 임원(任員) 여러 사라이 집행(執行)하나 수(數)가 많으므로 시간(時間)이 걸린다.

제사(祭祀)의 진행(進行) 사이사이에 무녀(巫女)와 악공(樂工)에 의(依)해서 가무(歌舞)가 있으며, 제사(祭祀)가 끝나는 것은 야반(夜半)이 훨씬 지나서이다. 새벽 첫 계명성(鷄鳴聲)에 의해서 제물(祭物)을 화주(火主) 집에 가져가고 임원(任員) 중(中)에서 몇 사람은 숙직(宿直)을 하며 무녀(巫女) 악사(樂士) 농악대(農樂隊)에 의해서 밤새 여흥(餘興)이 계속된다.

아침이 되면 제물(祭物)을 안주삼아 동민(洞民)들의 주연(酒宴)이 벌어지고, 제물일부(祭物一部)를 각가정(各家庭)에 봉송(封送)하여 길(吉)한 음식(飲食)이라 전(傳)하여 고루고루 나누어 먹는다.

당(堂) 곳을 할 때에 기(旗) 끝에 요령(搖鈴)을 달아매고 무녀(巫女)는 가무(歌舞)를 하는바 기간(旗竿)의 방울이 울리면 신의(神意)를 얻은 것이며, 울리지 않으면 신의(神意)를 얻지 못한 것이니 그 원인(原因)은 임원중(任員中)에 부정(不淨)한 자(者)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며, 당우(堂宇) 옆에 있는 은산천(恩山川)에 들어가 제계목욕(齊戒沐浴)을 다시해야 한다. 정(正)·2月の 야기(夜氣)는 매우 차나 부정(不淨)을 막기 위(爲)해서 하는 수 없었다. 신의(神意)를 얻기 위(爲)해서 수차(數次)나 물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

별신(別神)이 내릴 때까지 3·4日동안 당(堂) 앞에서 날마다 행군(行軍)과 간단한 축원(祝願)이 계속(繼續)된다.

⑪ 하당(下堂)곳

별신(別神)을 내리는 날 별신당(別神堂) 앞에서 출발(出發)하여 행렬(行列)이 시장(市場)으로 간다. 시장(市場) 안에는 수백년(數百年) 되었다는 큰 괴목(槐木)이 있으니 여기에서 하당(下堂)곳을 한다.

큰 고리짝에 쌀을 가득히 담고 그 한 가운데에 광목(廣木)으로 대를 감은 농기(農旗)를 세우고 임원중(任員中)에서 한 사람이 잡으며 농기(農旗) 위에는 요령(搖鈴)이 매달려 있다. 무녀(巫女)에 의(依)해서 진행(進行)되는 하당(下堂)굿은 역시(亦是) 방울이 울릴 때까지 굿을 하는바 무당(巫堂)은 임원전원(任員全員)과 기부자(寄附者)의 축원(祝願)을 한다. 축원(祝願)을 받은 임원(任員)들은 쌀 일두(一斗)와 약간(若干)의 돈을 놓으며 조화(造花)를 장식(裝飾)하고 소지(燒紙)도 올린다.

하당(下堂)굿은 임원(任員)의 수복강녕(壽福康寧), 동내(洞內)의 안태(安泰), 시장(市場)의 번영(繁榮)을 축원(祝願)하는 굿이다. 하당(下堂)굿에 올렸던 제물(祭物)은 제후(祭後) 모두 무녀(巫女)의 소유(所有)가 된다.

⑫ 독산제(獨山祭)

별신(別神)을 내리고 하당(下堂)굿을 마친 3日後에 독산제(獨山祭)를 지낸다. 독산제(獨山祭)는 화주(火主) 혼자서 별신당(別神堂)을 찾아가 별신제(別神祭)가 끝나감을 고(告)하는 의식(儀式)이다.

⑬ 장승제(祭)

독산제(獨山祭)가 끝난 다음 날 장승을 세우고 제사(祭祀)를 지낸다. 시장(市場)을 중심(中心)해서 사방(四方)으로 뻗은 도로변(道路邊)에 장승터가 있으니 매년(每年) 이곳에 장승을 새로 세우는바 산제(山祭)가 끝난 다음에 세운다. 별신제(別神祭)가 있는 해에는 따로 산제(山祭)를 지내지 않으니 별신제(別神祭) 다음에 장승을 세우는 것이다.

장승의 형태(形態)는 어느 곳의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며, 그 옆에는 별신제(別神祭) 첫날에 세운 진(陣)대가 세워져 있다.

장승은 통나무를 깎아 만들며 농악(農樂)을 선두(先頭)로 행렬(行列)해서 묵은 것을 버리고 새 장승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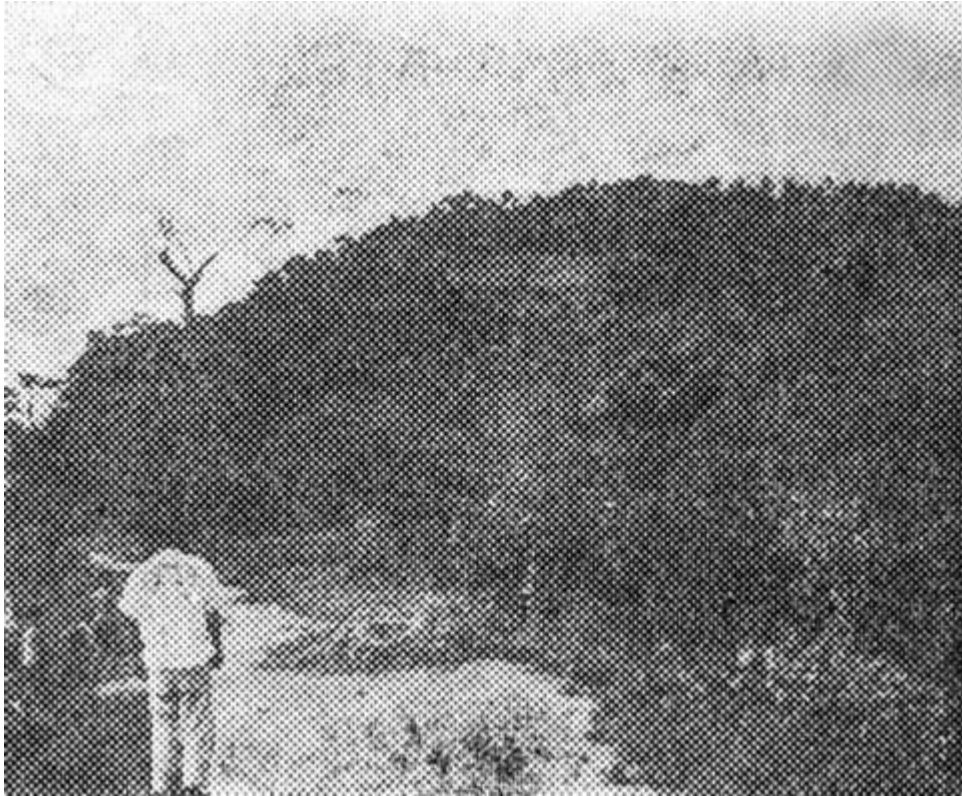
장승을 세우고 나면 이주일(二週日)동안에 걸쳐 떠들석했던 별신제(別神祭)도 끝이 난다.

4,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와 금기(禁忌)

별신제(別神祭) 때에는 시종일관(始終一貫)해서 엄격(嚴格)한 금기(禁忌)가 행(行)해지고 있다.

정월(正月) 3일에 기성회(期成會)가 발족(發足)하여 임원(任員)을 선정(選定)하는바 임원(任員)은 부정(不淨)함이 없는 사람 중(中)에서 고르니 상인(喪人)이 아니어야 하고, 가정(家庭)에 산고(産故)가 없어야 하고, 살생(殺生)이 없어야 하고, 금욕적(禁慾的)이어야 하며, 마음이 흉악(凶惡)하거나 비륵(比倫)한 과오(過誤)를 저지르지 않으며, 덕망(德望)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번 선정(選定)된 임원(任員)은 촌외출입(村外出入)의 제한(制限)을 받으며, 제기(祭期)동안 제계목욕(齊戒沐浴)으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도 곧아야 한다. 별신제(別神祭)가 있는 동안 동민(洞民)도 다같이 부정(不淨)을 범(犯)하지 않도록 서로 금기(禁忌)를 지키니 살생(殺生)을 하지 않고 원촌(遠村)의 상가(喪家)에 드나들지 않는다. 친정(親庭)이나 친척(親戚)집에 부득이(不得已)한 상(喪)이 있어 한번 동외(洞外)로 나가면 그 사람은 별신제(別神祭)가 끝날 때까지 동내(洞內)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不淨)을 타서 별신(別神)의 노여움을 사고 제(祭)를 지내도 효과(效果)가 없다는 것이다.



堂山과 堂이 있는 숲, 좌측색벽(左側絶壁) 아래에 恩山川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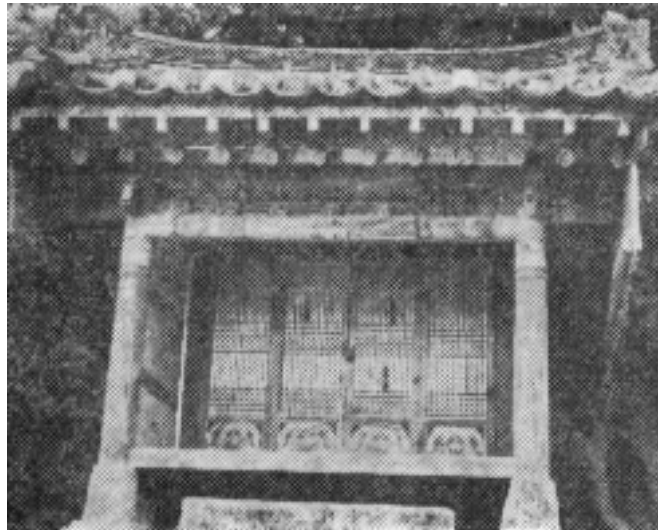
제기(祭期)가 되어 제물(祭物)을 만들기 위해서 화주(火主)집에 금(禁)줄을 쳐놓으면 별좌(別座) 이외(以外) 아무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한다. 부정(不淨)한 것을 막고 제물(祭物)의 신성성(神聖性)을 지키기 위한 금기(禁忌)이다.

제수(祭需)에 사용(使用)되는 용수(用水)는 은산천(恩山川)의 물을 쓰니 별신당(別神堂) 옆 은산천(恩山川)에도 금(禁)줄을 치고 부정(不淨)을 막는다. 금(禁)줄 안에는 함부로 접근(接近)을 금(禁)하며 금(禁)줄 윗마을에서도 하천(河川)에 오물(汚物)을 버리거나 우마(牛馬)에 물을 먹이지 않는다.

제물(祭物)을 만드는 도중(途中)에나 또는 제사전(祭祀前)에 남 몰래 먹고 손을 대면 신벌(神罰)을 받는다고 하며 병어리가 되거나 즉사(卽死)한다고 한다. 새가 떡살을 주워 먹고 죽은 일이 있다고 고로(古老)들 사이에 전(傳)하고 있다.

제물(祭物)을 화주(火主) 집에서 별신당(別神堂)으로 운반(運搬)할 때에 부정(不淨)을 막기 위해서 입에 밤을 물리거나 백지(白紙)로 대(對)하는바 신성(神聖)과 정결(淨潔)을 위해서 금기(禁忌)하는 것이다.

동민(洞民)들은 별신제(別神祭)를 지내지 않으면 재화(災禍)가 계속(繼續)되고 병마(病魔)가 연속(連續)하여 불행(不幸)한 일이 자주 발생(發生)한다고 믿는다. 또, 별신제(別神祭)를 잘못 지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별신제(別神祭)를 잘 지내면 동내(洞內)는 태평(泰平)하고 복(福)된 일이 많다고 한다. 6(六)·25(二五) 사변(事變) 때에 여러 곳에서 많은 화(禍)를 입었으나 은산(恩山)은 큰 화(禍)가 없었으며, 인명피해(人命被害)도 없었으니 별신(別神)의 덕(德)이라고 고로(古老)들은 말하고 있다.



堂집의 正面

수십년(數十年) 전(前)에 어느 분이 대장(大將)을 맡아 달라는 교섭(交涉)을 받았으나 역부족(力不足)해서 사양(辭讓)했던바 그날 밤에 호랑이가 마루 밑에 와서 있었으므로 신의(神意)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응낙(應諾)했다는 여화(餘話)도 있다. 또, 일제시(日帝時)에 일인서주임(日人署主任)이 별신제(別神祭)를 미신(迷信)이라 반대(反對)하고 허가(許可)를 해주지 않자 밤에 산군(山君)이 그의 관사(館舍)에 나타났으므로 하는 수 없이 허가(許可)하기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와 같은 여화(餘話)는 모두 별신제(別神祭)가 신의(神意)에 의(依)한 것이며, 신성(神聖)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엄격(嚴格)한 금기(禁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속사상(民俗思想)의 반영(反映)이다.

5,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의 보유자(保有者)

별신제(別神祭)에 임원(任員)으로 참여(參與)한 생존(生存)한 사람은 많이 있다. 그 중(中)에서 별신제(別神祭) 특(特)히 관여(關與)했던 보유자(保有者)의 명단(名單)은 전부(全部)가 아니고 그 일부(一部)이을 밝혀둔다.

(필자(筆者) · 서라벌 예대학장(藝大學長))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의 보유자(保有者) 명단(名單)

성명(姓名)	年令	역할(役割)	주소(住所)
류상렬(劉尙烈)	六九	기성회장(期成會長)	은산면 은산리(恩山面 恩山里)
허 강(許 樞)	六九	"	"
송영관(宋榮觀)	六一	"	"
윤상봉(尹相鳳)	七〇	대 장(大 將)	"
백남룡(白南龍)	六九	"	"
윤천금(尹千金)	六一	"	"

김백순(金白淳) 八三	대장(大將), 화주(火主)	〃
심인길(沈仁吉) 六〇	화 주(火 主)	〃
김동환(金東煥) 七二	별 좌(別 座)	〃
한상철(韓相喆) 四六	〃	〃
김영재(金英載) 七五	중 군(中 軍)	〃
류용길(柳龍吉) 六二	〃	〃
석태중(昔泰鍾) 五二	집 사(執 事)	〃
김상배(金相培) 五一	〃	〃
안중기(安重基) 六一	축 관(祝 官)	〃
라삼복(羅三福) 五七	〃	〃
안중구(安鍾九) 四七	〃	〃
이택구(李澤求) 五二	육 화 주(六 火 主)	〃
김삼복(金三福) 五二	〃	〃
석동석(昔東錫) 四四	통 인(通 引)	〃
한선량(韓善良) 四四	〃	〃
목덕수(木德洙) 四三	〃	〃
박언년(朴언년) 七四	무 녀(巫 女) 규암면 규암리(窺岩面 窺岩里)	